

해외출장(태국 - 방콕) 요약

부서 : 환경안전연구실

자료제공 : 황 인 창

작성일 : 2023년 06월 05일

게시요망일 : 2023년 06월 15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UNEP 과제 보고서 발간 행사 참석을 위한 태국 방콕 출장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뢰로 서울연구원이 협약과제로 수행한 “Beating air pollution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rough evidence-based sol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과제 관련 보고서 발간 행사 참석
- UNEP의 공식초청에 따라 2023년 기후와 청정대기 컨퍼런스(CCAC), 대기질 행동 주간(Air Quality Action Week) 행사에서 협력 기관과 함께 참석
 - 협력 기관: UNEP,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환경부,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
- UNEP 등 협력기관과 함께 후속 연구 관련 협력방안 논의
- CCAC 세션에서 패널 참여 등을 통해 한국과 서울의 대기질 개선 정책 경험 공유

2) 출장 내용

(1) UNEP 보고서 발간 행사 참석

- UNEP은 한국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의 대기오염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2050년까지 대기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 보고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도 분석하고 전망함
- 이 보고서를 통해 UNEP은 아세안(ASEAN) 국가와 도시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함
- 발간 행사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 UNEP 관계자, 과제 참여 연구진 뿐 아니라, BBC 기자, 국제기구 관계자, 아세안 국가 대표들이 패널 등으로 참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함



[그림 1] UNEP 보고서 표지



[그림 2] UNEP 보고서 발간 행사 사진

(2) CCAC 컨퍼런스 아세안 보고서 발간 행사 패널 토론 참석

- “Advancing mitigation through integrated planning on climate and clean air” 세션 참석
- 이 세션에서는 UNEP, ASEAN, CCAC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정대기와 기후 솔루션 아세안 보고서(Clean air and climate solutions for ASEAN)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향후 적응방안 등을 논의함
- 출장자는 이 세션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관리 통합접근법에 대한 한국과 서울의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Clean Air and Climate Solutions for ASEAN

May 2023

Logos: UNEP, ASEAN, CCAC

1

[그림 3] AESAN 보고서 초안 표지



[그림 4] CCAC 행사 사진

(3) 국제협력 후속 논의

- 출장자는 CCAC 행사의 다양한 세션에 참석하고, Gala 리셉션 참석, 국제기구 관계자 협의, 국내 지자체 관계자 협의, 국내외 연구자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함
- UNEP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의 후속으로 대기오염 정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건강 편익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
- 또한 저개발국가 도시들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한국 정부 혹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3개 연구기관은 UNEP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약속함
- SEI 연구진과 UNEP 과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함(국제학술지 논문 제출, 국제 연구진과의 연구협력 등)

3) 정책 시사점

- 최근 UNEP을 비롯해 국제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음.
- ASEAN, 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서도 통합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과 역량부족 등의 이유로 통합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못함.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바라고 있음.
- UNEP은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개도국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며 기술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나가길 기대하고 있음.
- 서울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러한 정책 수요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보다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대기오염-기후변화 통합평가 툴(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둘째로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의 내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많은 개도국과 도시들이 서울의 경험과 사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의 정책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환경안전연구실 황인창(02-2149-1096)